

## 한국어와 타지크어의 2인칭 대명사에 대하여

최미희  
두산배 1세 중학당

### 1. 서론

대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말 또는 그런 말들을 지칭하는 품사이다. 화백이나 문맥에 의해서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지가 표현된다. 대명사는 이런 상황 지시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다.<sup>1</sup> 특히 인칭 대명사 중에 청자를 지칭하는 2인칭 대명사는 화용적인 면에서 어느 때보다 더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굴절어인 타지크어와 교착어인 한국어는 서로 다른 언어군에 속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지크어는 인도유럽어이지만 어순이 ‘S + O + V’로서 흥미롭게도 한국어의 어순과 일치한다. 전치사와 후치사<sup>2</sup>를 가지고 있지만 구어에서는 전치사가 후치사로도 발화된다. 또한 두 언어 모두 성, 단수와 복수의 구별이 크게 없고, 격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타지키스탄이 지역적으로 투르크 민족들에 둘러 싸여 있고 교류가 활발했었기에 언어 특징도 영향을 받아 교착어의 특징을 띠고 있다고 보인다.

그동안 두 언어의 대조분석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았기에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본고는 이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서로 다른 군에 속한 언어의 2인칭 대명사의 대조언어학적인 면과 화용적인 면에서 차이점과 공통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2. 한국어-타지크어 인칭대명사의 특징

한국어 대명사는 크게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로 구분된다. 그러나 타지크어 대명사는 인칭대명사, 재귀대명사, 부정대명사, 미지대명사, 의문대명사, 한정대명사, 지시대명사로 구분된다. 이 중 한정대명사는 타지크어에만 나타나는 대명사이다.<sup>3</sup>

한국어와 타지크어의 인칭대명사는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분류하고 상대방의 지위에 따라 나눌 수도 있고, 단수형과 복수형으로 나눌 수도 있다.

<sup>1</sup> 이주행(2011), <알기 한국어 문법론>, 서울:도서출판 역락.

<sup>2</sup> 타지크어 후치사 (-po)[ro]는 한국어의 목적격 조사인 ‘을/를’의 의미와 활용이 유사하다.

<sup>3</sup> 한정대명사(таъйинӣ)는 인칭, 사물에 다 쓰이며 хама[hama] ‘모든’, хар[har] ‘각’, ‘마다’ гамомӣ[tamoni] ‘다’ 등이 있다.

한국어의 2인칭대명사는 청자의 연령, 관계, 지위의 상하 등에 따라 다른 인칭어가 사용된다. 그리고 친밀한 정도나 관계 정도에 따라 다양한 인칭어가 사용되는 반면, 타지크어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타지키스탄에서도 관계 중심, 장유유서의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화용적인 면에서는 친족어나 직함 등의 인칭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한국과 유사하다.

한국어와 타지크어에서도 2인칭 대명사를 주어로 사용하는 경우 담화 상황에서 청자와 화자가 누구인지 아는 상황에서는 흔히 주어의 생략 현상이 두드러진다.

### 3. 한국어의 2인칭 대명사

대표적인 2인칭 대명사로는 ‘너’와 ‘당신’이 있다. 그러나 아래 <표 1>에서 나타나듯이 발화상황에서 청자와 화자의 계층이 복잡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과 같이 단수와 복수가 전혀 다른 용어이거나 ‘-들’을 덧붙여 사용한다.

<표 1> 한국어의 2인칭 대명사 종류<sup>4</sup>

인칭		예사말	높임말	낮춤말
2 인 칭	단수	너/네 당신, 여보 자기	어른, 어르신 당신, 그대 부인	자네 당신
	복수	너희(들)	어른들 어르신들 그대들, 여러분(들)	

#### 3.1. ‘너’, ‘너희’

단수 형태인 ‘너’와 복수 형태인 ‘너희’는 한국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2인칭 예사말 표현으로, 듣는 이가 친구<예문(1)> 혹은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되는 상대나 아랫사람일 때<예문(2)> 그 사람을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이다.

단수 형태인 ‘너’는 주격 조사 ‘가’ 붙거나<예문(3)> 소유격 조사 ‘의’가 붙지 않으며 ‘네’로 나타난다.<예문(4)>

- (1) 너도 한국에 같이 가자.
- (2) 너는 어디에서 왔니?

<sup>4</sup> 김종록(2008), 『외국인을 위한 표준 한국어문법』, 서울:도서출판 박이정.

- (3) 넌가 집에 도착하면 연락해.
- (4) 넌 컴퓨터도 가져오면 좋겠어.

‘너’의 복수형으로 ‘너희’와 ‘너희들’이 사용되지만<예문(5)> 이들 복수형태가 1인칭 대명사 복수 ‘우리’와 같이 ‘너희’도 단수적인 상황에서도 쓰일 수가 있다.<sup>5</sup><예문(6)>

- (5) 너희(들)도 대회에 참가하면 좋겠다.
- (6) 오늘은 너희 집에서 공부하자.

### 3.2. ‘자네’, ‘자네들’

‘자네’는 낮춤말로 단수 형태이고<예문(7)> ‘-들’을 붙이면 복수 형태가 된다.<예문(8)> 위 <표 1>에는 복수형이 없지만 실제로 사용되고 있기에 추가하여 설명한다.

듣는 이가 친구나 아랫사람인 경우, 그 사람을 높여 이르는 2인칭 대명사로서 처부모가 사위를 부르거나 이를 때<예문(9)>, 혹은 결혼한 남자가 처남을 부르거나 이를 때도 사용할 수 있다.

- (7) 자네는 그 얘기 들었나?
- (8) 자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 (9) 장인: 자네 내일 등산 같이 갈래?

### 3.3. ‘당신’, ‘당신들’, ‘댁’

‘당신’은 듣는 이를 가리키는 높임말 이인칭 대명사로 ‘하오’체로 표현할 자리에 쓴다.<예문(10)> 부부 사이에서<예문(11)> 혹은 상대방을 높여 이르거나 맞서 싸울 때 상대방을 낮잡아 이를 때도 쓰이며<예문(12)>, 신을 지칭할 때는 3인칭으로<예문(13)> 사용되는 것으로 한국어의 대명사 중 가장 미묘하고 독특한 인칭 대명사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인칭 대명사이다. 아무에게나 ‘당신’이라고 지칭할 경우 괜한 시비에 말려들 수 있으니 한국어 학습자들은 사용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sup>6</sup>

‘댁’은 정확한 신분이나 이름을 모르는 상대를 높여 일컫는 말로 여성은 잘 사용하지 않는 남성의 인칭 대명사이다.<예문(14)>

- (10) 나는 당신(들)이 이 일을 맡아주면 좋겠소.
- (11) 당신 먼저 자요.

<sup>5</sup> 남기섬·고영근(1993), 『표준 국어문법론』 (개정판), 서울: 탑출판사

<sup>6</sup> 이익섭(2005), 『한국어문법』,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12) 당신이 먼저 시비를 걸었잖아.
- (13) 신이시여, 당신의 자비를 베푸소서.
- (14) 댁께서 전화하셨던 분이신가요?

3.4. ‘자기’, ‘여보’

일반적으로 ‘자기’는 재귀대명사로 알려져 있지만 재귀대명사 이외의 의미로서 2인칭 대명사로 사용되는 경우인 ‘자기’는 사랑하는 젊은 남녀들이 서로를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한다.<예문(15)> 그러나 50대 이상의 어른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sup>7</sup> 그리고 동료들 사이에 거리낌없이 친근하게 청자를 부를 때도 사용된다.<예문(16)>

‘여보’는 부부 사이에 상대를 호칭하는 일반적인 2인칭 대명사이다.<예문(17)> 그리고 주로 서로를 잘 모르는 남성들 간에 불리는 호칭이지만 요즘은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예문(18)>

- (15) 내게는 자기 밖에 없어.
- (16) 자기가 오늘 숙직이지?
- (17) 여보 오늘 일찍 오세요.
- (18) 여보 이게 어디에 쓰이는 물건이요?

3.5. ‘어른(들)’, ‘어르신(들)’

높임말로 ‘어른’, ‘어르신’은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일컫는 2인칭으로 쓰이나<예문(19)> 3인칭 대명사로 지위나 신분이 높은 상대에게 더 많이 쓰이며, 남성과 여성 구분 없이 사용한다.<예문(20)>

- (19) 어르신(들)께서도 평안하셨습니까?
- (20) 친척 어르신(들)의 생가는 안동에 있습니다.

4. 타지크어의 2인칭 대명사

<표 2> 타지크어의 2인칭 대명사 종류

인칭		예사말	높임말
2 인 칭	단수	ты[tu] 너	Шумо[shumo] 당신(들)
	복수	шумо[shumo] 너희(들) шумоҳо[shumoho] 제군(들) шумоён[shumoyon] 제군(들)	

<sup>7</sup> 김종록(2008), 『외국인을 위한 표준 한국어문법』, 서울:도서출판 박이정.

#### 4.1. ‘ту’와 ‘шумо’, ‘шумоҳо’, ‘шумоён’

타지크어에서 2인칭 대명사 예사말 단수 형태는 ‘ту’ 이고<예문(21)>, 복수 형태는 ‘шумо’<예문(22)>, ‘шумоҳо’, ‘шумоён’ 등이 있다. 한국어의 ‘너’, ‘너희(들)’, 제군(들)에 대응된다. 한국어와는 달리 타지크어의 2인칭 대명사는 다양하지 않다. 타지크어의 ‘ту’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2인칭 대명사 단수 형태로 청자가 화자보다 지위가 낮거나 나이가 적을 때 혹은 친한 사이에서 사용하고 남녀 구분 없이 두루 사용된다.

타지크어에서 ‘шумо’는 가장 일반적인 2인칭 대명사 복수로 쓰인다. ‘шумо’ 만큼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шумоҳо’, ‘шумоён’도 지도자나 연장자 혹은 선생님이 여러 명의 아랫사람이나 제자들을 존중하여 이르는 2인칭 복수 대명사이다.<예문(23)> 하지만 요즘 특정 대상이 아닌 일반 대중 혹은 국민들에게 명절 인사, 축하 등의 메시지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여러분 모두’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21) Ман туро дӯст медорам.(나는 너를 좋아해.)

(22) Мактаби шумо дар кучо аст?(너희 학교는 어디에 있니?)

(23) Шумоён/ Шумоҳо хавотир нашавед.(제군들 걱정하지 말게)

#### 4.2. ‘Шумо’

타지크어 2인칭 대명사 ‘Шумо’는 매우 특이하고 독특한 형태와 역할을 가지고 있다. 2인칭 복수와 형태가 같은 단어이면서도 특이하게도 청자의 수와 관계없이 존대어나 높임말로 사용이 되며, 존칭어로 사용할 시에는 반드시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해야 한다.

한국어 2인칭 대명사가 예사말, 높임말, 낮춤말로 세분화되어 있는 양상과는 달리 타지크어의 2인칭 대명사는 분화되지 않고 단 하나의 단어 ‘Шумо’로 겸양, 존대, 평칭에 모두 쓰이고 있어 매우 흥미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예문(24)>

(24) Шумо аз кучо омадед?(당신(들)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 4.3. 한국어와 타지크어 2인칭대명사에 나타난 화용적 특징

‘너’, ‘당신’으로 대표되던 한국어 2인칭대명사가 ‘자기’, ‘그대’, ‘임자’, ‘자네’ 등으로 다변화되고 그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다양화 현상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보인다.

그 동안 한국어에서는 친족어를 2인칭 대명사 대용어로 적지 않게 사용해 왔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인터넷시대가 되고 핵가족화, 개인주의

가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직업이나 지위와 관련된 2인칭 대명사 대용어 사용이 점점 더 늘고 있다. 이는 시대 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하겠다.

타지크어에서의 특징은 2인칭대명사가 다양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단어들로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친족어가 그것을 대용한다. 타지크사회가 대가족, 친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타지크어에서 2인칭 대명사 보다 훨씬 많이 쓰이고 있는 친족어로는 ака(형/오빠), апа(언니/누나), хола(이모), таго(외삼촌), амак(친삼촌), бобо(할아버지), биби(할머니), бародар(형/형제), духтар(딸/아가씨), додар(동생), янга(형수/숙모), бача(남자아이) 등등이 있다.<sup>8</sup>

직업 혹은 지위 용어로는 муаллим(남 선생님), муаллима(여 선생님), устод(선생님), усто(기술자), раис(사장님/대표자) 등등이 있고, 이름이나 성 앞에 사용하는 신생 호칭으로 чаноб(미스터), жонум(미스, 미세스) - 이들은 극 존칭어처럼 쓰임 - 등이 있다.

2인칭 대명사를 대신한 용어들은 그 활용에 있어서 감정적 거리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으며 화용적 양상에 따라 용어 자체의 의미가 아닌 관계성이나 친밀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타지크 사회에서는 심지어 외국인에게까지도 친족용어로 2인칭 대명사를 대신하여 호칭하는 정도다. 이런 현상은 타지크 사회가 얼마나 관계 중심의 사회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5. 결론

서로 다른 언어군인 한국어와 타지크어의 2인칭 대명사를 화용적 측면과 대조 분석적인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한국어는 2인칭 대명사가 매우 다양하고 분화되어 있는 반면, 타지크어의 2인칭 대명사는 변화가 거의 없고 다양하지 못하며 단순하다. 이는 2인칭 대명사 보다 친족어, 직업어가 타지크 문화, 관습, 정서에 더 잘 수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2인칭 대명사는 청자 화자 간 직접적 대화에 사용되기에 다른 대명사 보다 화용적, 사회적 요인이 더 많이 작용된다. 2인칭 대명사에는 청자 화자 간 감정적 거리의 가깝고 먼 정도, 그 언어 사회의 문화가 반영되어 나타나게 됨을 볼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2인칭 대명사를 대신해 과거에 사용되었던 친족어들이 점점 사라지고, 대신에 청자와 화자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나 직업 혹은 지위와 관련된 용어들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심지어 인터넷 상에서 많은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아예 2인칭 대명사가 쓰이지 않는다는 것

---

<sup>8</sup> 많이 사용되는 빈도수에 따른 나열이 아니며, 이 외에도 쓰이는 용어가 더 있지만 대표적인 예를 들었다.

기호나 그림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반면 구 소련 독립 후 내전을 겪었던 타지키스탄에서는 관계 중심의 사 고가 언어에도 나타나 타인이나 외국인에게까지도 2인칭 대명사보다는 친족어 사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연장자와 지위가 높은 사람 혹은 선생님에 대한 존경이 2인칭 대명사를 대신한 직함이나 직위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본고를 통해서 부 연하고 싶은 것은 2인칭 대명사에 대한 대조 분석은 문법적인 것뿐만 아 니라 사회적, 문화적, 화용적인 측면에서의 심도 있는 연구 또한 필요하 다는 것이다.

아직은 타지크어와 한국어 두 언어간의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앞으로 두 언어 간의 심도 있는 연구 자료가 더 많이 나와 한국 어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 김종록(2008), <외국인을 위한 표준 한국어문법>, 서울:도서출판 박이정.
3. 남기심·고영근(1993), <표준 국어문법론>(개정판), 서울: 탑출판사.
4. 이익섭(2005), <한국어문법>,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5. 이익섭·채완(2004), <국어문법론강의>, 서울: 학연사.
6. 이주행(2011), <알기 쉬운 한국어 문법론>, 서울: 도서출판 역락.
7. 임흥빈·홍경표·장숙인(1987), <한국어문법>, 서울: 신구문화사.
8. 조남호·윤석민(2012), <언어와 의미>,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사.
9. 황화상(2013), <현대국어형태론>(개정판), 서울: 도서출판 지식과 교양.
10. Абдуқодиров, А.(2006). Давронов А. Услубиёти зобони тоҷикӣ. Хучанд: Ношир.
11. Б. Ниёзмухаммадов(1982). забони адабии ҳозираи тоҷик, қисми 1 Лексикология. Фонетика. Морфология. Душанбе: Маориф.
12. \_\_\_\_\_(1973). забони адабии ҳозираи тоҷик, қисми 2 Синтаксис. Душанбе: Маориф.
13. Возидов, Н(1977). Муқаддимаи зобоншиносӣ. Душанбе: Маориф.
14. Зоҳидов, А(2009). Таъсири зобони руси ба калимасазии забони адабии тоҷик. Хучанд: Ношир.
15. Калонова, Маҳина(2012). Калимасозии ҳиссаҳои номии нутқ (исму сифат)дар ашъори Ҳофизи Шерозӣ, Рисолаи дипломи Хучанд.
16. Норматов, Мадирохим(1995). Муқаддимаи забоншиносӣ. Душанбе: Маориф.
17. Рустамов, Ш(1976). Таснифоти ҳиссаҳои нутқ ва мавқеи исм, Душанбе: Дониш.
18. Саймидин, Д(2001). Вожашиносии зобони форсии миёна. Душанбе: Пай ванд.
19. Сиёев, Бекмурод(2002). Ташаккули ҷонишинҳо дар забони тоҷикӣ, нашириёти "ирфон" Душанбе.